

##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이 성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황명희송 · 김종민\* · 문인옥†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보건관리학과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보건관리학과

### Predicting Adolescent Sexual Behaviors and Attitudes From the Use of Harmful Media

Myung-Hee Song Hwang · Jong-Min Kim\* · Inok Moon†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Literature has show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harmful media and sexual behaviors among adolescents. Laws and regulations of violent and sexual mass media are getting stricter, but young children reported that they were still accessible to these harmful materials. It might be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iques in media delivery and new trends of game addict among Korean adolescents. Since there were very few studies on recent harmful media available to young children, the authors explore the usability of harmful media and identify related factors that can predict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activitie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internal data that were drawn from National Youth Committee's survey of adolescent harmful environment in 2007.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3,721 adolescents who were randomly selected based on strata of geography, school, and gender.

**Results:** Adolescents accessed mostly to NC-19(No Children under 19) TV programs(35.8%) and AO(Adult Only) games(35.5%). Most of them reported that they did not have difficulty in the contact of these harmful media. The factors that can predict adolescent sexual intercourse are male adolescents, attending high school, not being satisfied with family life and school, contact with phone-advertising of sex, AO games and other online games, viewing adult videos, or reading adult books.

---

접수일 : 2008년 12월 1일    수정일: 2008년 12월 10일    채택일: 2008년 12월 15일

† 교신저자 : 문인옥(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Tel: 02-3277-2578    E-mail: iomoon@ewha.ac.kr

Conclusions: When sex education is designed, an instructor considers not only stu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ut also the strategies to deter the use of harmful media especially for game materials.

*Key words:* Adolescents, Harmful media, Sexual behavior

## I. 서 론

청소년의 유해환경은 청소년 성 비행과 폭력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우형진, 2008; 김수연과 이기숙, 1999)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유해환경의 개념과 범주는 그 시대의 상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바뀌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유해환경은 학교 주변의 분식점과 영화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해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의미하였다(표갑수, 1994). 반면 최근 대전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정의에 따르면 음란, 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술, 담배 등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약물, 성기구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물건, 유흥업소 등에서 행하여지는 업소폭력, 학대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구역 등을 포함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을 총칭한다(대전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008). 즉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물품, 유해 장소(업소와 구역) 및 시설뿐 아니라 유해 행위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유해환경을 지칭하는 여러 요인 중에는 인터넷과 PC통신, 케이블 방송, 모바일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동원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적 감정과 폭력적인 행동을 자극하는 각종 유해 매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대

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성에 관련된 유해매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 보호되어 있어 일반 미디어나 광고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해 매체와 성 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유해 매체물은 주로 전파와 영상(음란 및 폭력성 비디오, 영화, 만화, PC, 포르노와 게임, 음성 정보 서비스), 인쇄매체(성인만화, 월간지, 잡지, 소설), 광고매체(음란 및 외설적인 선전물과 옥외광고)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해매체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은 감정억제의 어려움, 집중력 저하, 성적 충동과 모방 충동의 증가, 자위행위의 증가, 나아가 성폭력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권이종 등, 1998; 최충욱과 조영제, 1997). 특히 연령이나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유해매체를 접촉하는 정도가 비슷하여 저연령 청소년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관망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수연과 이기숙, 1999). 최충욱과 조영제(1997)는 전자와 영상에 의한 유해매체는 인쇄매체에 비해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가 심각하며 특히 남자 청소년의 성 비행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음( $r=.43\sim.46$ )을 발견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분야의 대표적인 유해 매체물인 성인용 음란사이트 이용경험은 1999년보다 2002년도에 일반집단 청소년 및 특수집단 청소년 모두

이용률이 급증하였으나 2005년도 이후 조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자체가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중독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서 음란사이트 보다는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의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에 나타났듯이 청소년 유해매체가 성 비행 등과 관련된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였으나 나날이 새로운 매체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의 행태가 게임 중독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유해매체 분류에서 폭력과 선정성 게임, 온라인 사행성 게임, 폰팅과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광고를 더하여 청소년 성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으로 첫째,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가족과 학교생활)과 유해매체 이용실태의 관계를 조사하며 둘째, 유해매체이용과 성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 셋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성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설명 변인들이 청소년 성태도와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II. 연구 방법

전국의 중학교와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남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7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 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은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유해 매체물에 대한 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성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북돋워 일으켜서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또한 선정성 전화 광고는 유희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욕구를 유발시키는 문자나 전화광고를 말한다.

### 1. 조사대상과 조사 방법

통계청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전국 중등학교 학생 수에 따라 학교 급별, 지역별, 성별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추출방식과 함께 다단계층화 표본추출법이 사용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강남과 강북지역),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9개의 시·군지역(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남도, 전라 북·남도, 경상 북·남도, 제주도) 3개 층으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학생모집단 구성 비율에 따라 학교 수를 배정하였는데 서울시는 28개, 6대 광역시는 42개, 시군지역은 80개의 학교 수를 배정하였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과 고등학교 (일반과 실업)로 나누었고, 각 학교는 학년별로 1개 학급씩 3학급을 무작위추출하여 총 150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각 학급은 약 30명 기준으로 하여 표본 조사된 총 학생 수는 13,721명이다.

자료 조사기간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2007년 11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자기 기입식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1999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개발한 유해매체물 접촉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 로 측정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성별과 학년, 학교형태 외에 가족 내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 가족 구성원간의 화목, 학교생활을 포함한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의 화목 정도와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5점 Likert Scale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만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유해매체물은 성인용 간행물(만화, 소설 등), 영상물(비디오, 영화 등), 인터넷 등의 음란 사이트, '19세 미만 시청 불가'로 표시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성인 케이블 방송, 성인용 모바일 서비스(핸드폰으로 보는 동영상, 사진 등), 폰팅과 성매매 유도형 전화번호 광고, 온라인 사행성(고스톱, 포커, 경마 등) 게임, 폭력과 선정성 게임을 포함한 9가지로 구분하였다. 유해물 접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 달, 년에 따른 유해매체 이용률과 매체이용 시간대, 사용시간, 동반자 등을 포함한 5문항 외에 유해매체에 대한 인식도와 태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유무, 유해매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 여부 등 6문항이 있었다.

성행동에 관한 질문에서는 성관계를 성교 행위, 성적 행위는 키스, 애무와 같은 성적 접촉을 나타내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이에 대한 경험 여부, 동성애, 성매매, 성폭력 등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태도에 대한 척도는 7개의 소항목으로 각각에 대하여 5점 Likert Scale로 측정되었다.

## 3. 분석방법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 유해매체 이용 실태, 성관련 태도와 행동에 대하여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유해매체물 이용, 성관련 태도와 행동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유해매체물 이용의 교차분석, 유해매체물 이용과 성관련 태도 및 행동(t 또는 F 검정), 성관련 태도/행동적인 요인과 사회인구학적인 요인(F 검정)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성관련 태도(성 경험)에 미치는 요인들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유해매체 이용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 로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표본 추출된 총 150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남학생 7,276명(52.8%)과 여학생 6,445명(47.2%)을 포함한 총 13,721명이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이 7,408명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각각 약 18%의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고등학생은 총 6,313명 중에서 1학년 15.8%, 2학년 25.0%, 3학년 5.2%인 구성을 이루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61.4%), 상위권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16.4%,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1.3%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중 유해매체의 이용과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가정생활 만족도와 학교생활 만족도를 들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48.8%는 대

체적으로 현 가정생활이 만족스럽다고 하였으나, 17.0%는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51.2%)이 여학생(45.2%) 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중학생(52.5%)이, 인문계 고등학생(49.2%)이나, 실업계 고등학생(28.6%)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학교생활에 대하여는 가정생활 만족도에 비해 조금 낮은 34.7%의 학생들만이 만족스럽다고 대답하였다. 또 다른 약 30%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라 조금 다른 분포를 보였는데, 남학생(35.8%)이 여학생(33.4%)보다 학교생활에 만족스럽다고 하였고, 중학생(39.6%)이 고등학생(인문계 30.5%, 실업계 24.9%)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개인의 성적은 학교 전체에서 상위권이 26.6%, 중위권 37.1%, 하위권 35.9%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실태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률은 유해매체의

종류에 따라 4~35%로 나타났다<표 1>.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물로는 19세 미만 시청불가인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이었고(35.8%) 다음으로 19세 미만 이용불가인 폭력· 선정성 게임(35.5%), 성인용 비디오 등의 영상물(33.4%), 인터넷 등의 음란 사이트(32.7%), 온라인 사행성 게임(32.0%)의 순이었다. 핸드폰을 통한 성인매체 이용(5.1%)과 폰팅 등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광고(4.0%)는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유해매체 이용은 일 년에 1~2번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주로 집이나 친구 집에서 이용을 하였다. 19세 미만 이용불가 게임에 대하여는 이용 빈도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35.5%의 성인 게임 이용률 중 일 년에 1~2번 정도가 10.7%, 한 달에 1-2번 정도가 9.1%, 주 3일 이상이 8.6%로 나타났다. 또한 68.0%의 청소년이 '현실적으로 성인용 매체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답하였고, 실제로 전체 청소년의 50.6%는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 등을 하기 위해 다른 어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표 1>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실태

단위: 명(%), (N=13,721)

구 분	한 번도 없음	1 년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주 3일 이상	이용율*
성인용 간행물	10016 (73.0)	1921 (14.0)	1029 (7.5)	439 (3.2)	316 (2.3)	3705 (27.0)
성인용 영상물	9138 (66.6)	2305 (16.8)	1413 (10.3)	548 (4.0)	329 (2.4)	4582 (33.4)
음란 사이트	9234 (67.3)	2058 (15.0)	1413 (10.3)	672 (4.9)	343 (2.5)	4486 (32.7)
19세 이상 케이블	8809 (64.2)	2181 (15.9)	1619 (11.8)	754 (5.5)	370 (2.7)	4912 (35.8)
19세 이상 지상파	10606 (77.3)	1482 (10.8)	947 (6.9)	439 (3.2)	260 (1.9)	3115 (22.7)
핸드폰 동영상	13021 (94.9)	370 (2.7)	137 (1.0)	55 (0.4)	137 (1.0)	699 (5.1)
폰팅	13172 (96.0)	220 (1.6)	137 (1.0)	55 (0.4)	137 (1.0)	549 (4.0)
온라인 사행성 게임	9330 (68.0)	2140 (15.6)	1262 (9.2)	549 (4.0)	425 (3.1)	4390 (32.0)
19세 이상 선정성게임	8850 (64.5)	1468 (10.7)	1248 (9.1)	974 (7.1)	1180 (8.6)	4885 (35.5)

\* 이용율은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합.

### 3. 청소년의 성에 관련된 태도와 성경험

청소년들의 성관련 태도 중 ‘여자는 혼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45.8%인 반면 ‘남자는 혼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38.3%로 남·녀 간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 차이를 보였다. ‘이성친구와 포옹이나 키스 같은 성접촉을 할 수 있다’는 46.4%가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1.7%이었다. ‘이성친구와 포옹이나 키스와 같은 성접촉을 할 수 있다’는 태도에는 다소 관대하였으나(평균 2.79)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태도에 있어서 비교적 보수적(평균 2.42; 이 문항들은 평균값이 낮은 것이 보수적임)이었다.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50% 정도가 성관계

를 맺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애정 없이도 혼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54.3%이었다. ‘성인과 성매매(원조교제)를 해도 무방하다’와 ‘어른과 성관계 없이 돈 받고 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각각 68.2%, 66.4%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어른들과의 성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태도(평균 4.2~4.5)를 가지고 있었다. 사용된 조사 도구인 성관련 태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84이었다<표 2>.

성관계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약 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5.2%)이 여학생(2.7%)보다 약 2배가 많았다. 학교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9.6%)이 인문계 고등학생(4.5%)보다 그리고 중학생(2.3%) 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많았다.

<표 2>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태도

단위: %, (N=13,721)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1. 남자는 혼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 <sup>†</sup>	38.3	18.1	26.8	6.3	8.2	2.42
2. 여자는 혼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 <sup>†</sup>	45.8	18.5	22.8	4.5	6.2	2.20
3. 이성친구와 포옹/키스와 같은 성접촉을 할 수 있다	19.5	26.9	31.3	8.6	11.7	2.79
4.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13.4	14.0	25.4	17.3	27.6	3.45
5. 애정 없이도 혼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	7.8	3.7	16.2	15.9	54.3	4.18
6. 성인과 성매매(원조교제)를 해도 무방하다	6.6	1.8	11.0	10.1	68.2	4.45
7. 어른과 성관계 없이 돈 받고 데이트 할 수 있다	7.2	2.9	11.6	9.8	66.4	4.38

주 : 무응답으로 각 문항의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sup>†</sup>의 평균값은 낮을수록 보수적임

### 4. 청소년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 유해매체 이용, 성관련 태도 및 성경험의 연관성

1)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유해매체이용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중 성별과 학급별,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유해매체 이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성별로는 유해매체물의 모든 종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인터넷 등의 음란 사이트 이용이 44.2%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19세 미만 시청 불가인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이 33.3%로 많았다. 둘째, 학교 급별로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유해매체를 많이 이용하였다( $p < .001$ ). <표 3>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 유해매체의 종류에 따른 이용도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유해매체물 이용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중학생은 음란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 고등학생은 케이블방송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셋째, 가정생활 만족도를 만족, 보통, 불만족으로 나누었을 때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유해매체물 이용도가 높아졌다( $p < .001$ ). 그러나 모든 수준에서 유해매체물 중 똑같이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넷째, 학교생활 만족에 대하여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낄수록 유해매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p < .001$ ).

## 2)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성관련 태도 및 성격형

<표 4>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가정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들과 성관련 태도간의 연관성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성관계 경험 연관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관련 태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 < .001$ ). 또한 학년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성에 대한 태도도 개방적으로 변해가는데 구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성에 대한 개방성 태도 점수가 4.03으로 5점에 가까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점점 감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개방성 태도 점수가 3.57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 < .001$ ). 이외에도 학년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수준과 가정·학교생활 만족도와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p < .001$ ).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은 성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성행동의 주요변인으로 성격형 여부를 선택하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가정과 학교생활이 불만족스러울수록 성관계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01$ ).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1.7~2.9%)에 비하여 고등학생 성관계 경험률(6.3%)이 약 두 배 이상 높았는데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은 약 10명 중 1 명꼴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경험률은 중간 정도(3.2%)보다 하위(6.1%)가 두 배 정도 높았고 또한 상위(4.3%)가 중위보다 더 높았다. 불만족스런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은 만족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보다 성격형률이 두 배 또는 세 배가 더 높았다.

성관련 태도가 개방적일수록(성관련 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성격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성관련 태도 점수가 3.55이고 여학생의 경우 4.01점이며, 성격형은 약 2배 정도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모든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에서 성 관련 태도 점수가 4.0점 이하일 때 성격형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lt;표 4&gt;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성관련 태도 및 성경험

구 분	성관련 태도 <sup>†</sup>			성경험			
	M±SD	t or F	p	%	t or F	p	
성 별	남자(명)	3.55±0.89	-33.246	<.001	5.1	1171.856	<.001
	여자	4.01±0.70			2.7		
학 교 급	중 1	4.03±0.84	103.593	<.001	1.7	26.671	<.001
	중 2	3.87±0.82			2.4		
	중 3	3.78±0.81			2.9		
	고 1	3.60±0.84			5.9		
	고 2	3.63±0.81			5.3		
	고 3	3.57±0.78			9.5		
경 제 수 준	상	3.71±0.90	8.679	<.001	4.3	23.086	<.001
	중	3.79±0.82			3.2		
	하	3.74±0.83			6.1		
가 정 생 활 만족도	만족	3.84±0.83	58.370	<.001	2.8	45.542	<.001
	보통	3.73±0.81			4.0		
	불만족	3.62±0.86			7.3		
학 교 생 활 만족도	만족	3.85±0.82	79.191	<.001	3.1	30.387	<.001
	보통	3.79±0.81			3.3		
	불만족	3.62±0.87			6.0		

주: †성관련 태도는 5점이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1점이 개방적임을 의미함.

### 3) 유해매체 이용과 성관련 태도/성경험

각 유해매체 이용에 따른 성관련 태도와 경험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매체이용 빈도를 세 가지 수준(없다, 가끔씩, 주 3회 이상)으로 나누었을 때 모든 유해매체물에서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p<.001$ ). 둘째, 유해매체물 이용이 잦을수록 성경험과도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p<.001$ ) 특히 유해매체물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성경험이 6-8배 정도 많았고, 가끔씩 유해매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보다 2-3배나 많았다. 여러 유해매체 중 성인용 간행물을 주3회 이상 보는 학생들은 성경험이 18.4%로 본 적이 없는 학생들보다 9배 정도 더 많았으며, 핸드폰 동영상이나 폰팅의 이용 빈도는 성관련 태도를 보이고

( $2.86\pm 1.10$ ,  $2.90\pm 1.10$ ), 성경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어 각각 24.1%, 22.7%의 높은 성경험률을 보여주었다<표 5>. 셋째, 유해매체 이용과 성관련 태도를 개방적, 중간, 보수적(성관련 태도는 5점이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1점이 개방적임을 의미함)으로 나누었을 때 개방적일수록 성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chi^2=171.201$ ,  $p<.001$ ).

성관련 태도점수를 비교하여 볼 때 3점에 가까울수록 급격히 성경험률이 증가하였다. 핸드폰 영상이나 폰팅과 같은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성관련 태도의 평균이 2.86, 2.90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성경험률도 2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유해매체 이용과 성관련 태도 및 성격험

구 분	성관련 태도 <sup>†</sup>			성경험		
	M±SD	F	p	%	F	p
<b>성인용간행물</b>						
본 적 없음	3.86±0.81			2.7		
가끔 <sup>‡</sup>	3.53±0.81	309.860	<.001	6.5	135.409	<.001
주3회 이상	3.03±0.99			18.4		
<b>성인용 DVD</b>						
본 적 없음	3.88±0.81			2.6		
가끔 <sup>‡</sup>	3.57±0.82	333.690	<.001	6.2	98.395	<.001
주3회 이상	3.01±1.04			14.6		
<b>음란 사이트</b>						
본 적 없음	3.89±0.79			2.9		
가끔 <sup>‡</sup>	3.53±0.84	395.876	<.001	5.6	81.627	<.001
주3회 이상	3.04±1.04			14.6		
<b>케이블 방송</b>						
본 적 없음	3.86±0.83			3.0		
가끔 <sup>‡</sup>	3.63±0.80	216.106	<.001	4.9	96.592	<.001
주3회 이상	3.13±1.02			16.8		
<b>지상파 방송</b>						
본 적 없음	3.84±0.82			3.2		
가끔 <sup>‡</sup>	3.56±0.83	214.110	<.001	5.9	78.603	<.001
주3회 이상	3.06±1.00			16.7		
<b>핸드폰 동영상</b>						
본 적 없음	3.79±0.82			3.6		
가끔 <sup>‡</sup>	3.34±0.88	150.150	<.001	8.6	91.617	<.001
주3회 이상	2.86±1.10			24.1		
<b>폰팅</b>						
본 적 없음	3.79±0.82			3.6		
가끔 <sup>‡</sup>	3.36±0.90	117.529	<.001	9.7	85.877	<.001
주3회 이상	2.90±1.10			22.7		
<b>사행성게임</b>						
본 적 없음	3.82±0.83			3.0		
가끔 <sup>‡</sup>	3.67±0.81	127.395	<.001	5.2	73.382	<.001
주3회 이상	3.23±0.99			13.8		
<b>선정성게임</b>						
본 적 없음	3.86±0.81			2.7		
가끔 <sup>‡</sup>	3.62±0.83	204.293	<.001	5.4	72.399	<.001
주3회 이상	3.47±0.94			9.7		

주)†: 일 년에 한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을 합한 것임.

‡: 성관련 태도는 5점이 성에 대해 보수적이고 1점이 개방적임을 의미함.

### 5. 청소년 성격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들의 성관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예측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청소년의 성격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과 학년의 증가라 할 수 있다.

남학생이고 고학년이 될수록 성격험을 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약 1.8배(OR:비차비)정도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그 외에도 성격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생활 만족도 그리고 유해매체 종류에 따라서는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DVD), 폰팅, 사행성 게임, 선정성 게임이 성격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는 학생은 만족한 학생보다 약 2배 ( $OR=2.2$ ) 이상 성경험을 하였다( $p < .001$ ).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약 1.4배( $OR=1.4$ )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해매체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성인용 간행물과 성인용 DVD가 약1.3배, 폰팅 ( $OR=1.5$ ), 사행성 게임( $OR=1.2$ ), 선정성 게임( $OR=1.3$ )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표 6> 청소년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B	S.E.	p	Exp(B)	95% C.I.
성	남자				1	
	여자	-.544	.101	<.000	.580	0.476, 0.708
학급별	중학생				1	
	고등학생	.588	.103	<.000	1.800	1.472, 2.200
경제수준	상				1	
	중	-.465	.129	<.000	0.628	0.488, 0.809
	하	-.160	.148	.278	0.852	0.638, 1.138
가정생활만족도	만족				1	
	보통	.314	.113	.006	1.369	1.097, 1.710
	불만족	.782	.126	.000	2.186	1.797, 2.800
학교생활만족도	만족				1	
	보통	-.750	.120	.534	0.928	0.734, 1.174
	불만족	.342	.114	.003	1.408	1.127, 1.759
성인용간행물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318	.112	.005	1.375	1.103, 1.714
성인용DVD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303	.117	.010	1.354	1.077, 1.702
음란사이트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044	.111	.692	1.045	0.841, 1.299
19세 이상 케이블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077	.116	.509	0.926	0.738, 1.162
19세 이상 지상파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103	.119	.753	1.109	0.878, 1.400
핸드폰 동영상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168	.196	.731	1.182	0.805, 1.736
폰팅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406	.203	.045	1.501	1.009, 2.232
사행성 게임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205	.102	.044	1.228	1.005, 1.500
선정성 게임	본 적 없음				1	
	본 적 있음	.252	.109	.020	1.287	1.040, 1.592

주) 가변수: 성(남자), 학교급(중학교), 경제수준(상), 가정/학교만족도(만족), 유해매체(본 적 없음)이 기준

#### IV. 토의 및 결론

보건복지가족부의 2007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는 26.1%로 본 조사인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이용 실태인 평균 약 23%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위기청소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해매체물로는 19세 이상 지상파 프로그램 이용이었고, 다음으로 성인용 폭력·선정성 게임, 성인용 영상물, 인터넷 등의 음란사이트, 온라인 사행성 게임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들의 행태 변화에 따른

성인용 폭력· 선정성 게임과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유해매체물 종류로 더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는데, 게임적인 요소를 뺀다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실태조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일반 프로그램, 성인용 영상물, 인터넷, 간행물, 성인 케이블 방송, 모바일의 순이었다. 다른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과거에는 성인용 인쇄물(종이 출판물)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중이 출판물 또는 전자·전파·영상물로 전이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게임의 형태를 띤 유해매체물과 모바일 광고매체물의 사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유해매체물 이용, 성관련 태도와 행동 이 세 가지 영역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유해매체물 이용, 유해매체물 이용과 성관련 태도 및 행동, 성관련 태도/행동적인 요인과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영역이 순차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런 남자 고등학생이 유해매체를 많이 또는 자주 이용을 하게 되며, 이러한 비행이 반드시 성적으로 개방되어 성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단지 각 영역 간에 구체적인 위험인자들을 선별하여 유해매체물에 대한 보건교육 또는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단계인 청소년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결과는 유해매체물에 대한 국가, 학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감시와 규제활동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사회인구학적인 변수 중 남학생일수록, 고등학생일수록,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불만족스러

울수록 성경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모든 유해매체물에 더 많이 접촉이 되어 있었으며, 성관련 태도도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김수연과 이기숙(1999)의 유해환경 접촉조사에서 유해매체인 경우 연령이나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접촉하는 빈도가 비슷하다고 하였다. 상반된 연구 결과이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각 유해매체별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비접촉률에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본문에서 구체적인 표로 제시를 하진 못했지만, 성인용 간행물인 경우를 예로 들면 비이용률은 중학생이 각각 22.4%, 20.5%, 20.6%이고 고등학교 1학년은 11.5%, 2학년은 20.6%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이용률의 차이 없음은 중학생 즉, 저연령 청소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응답자들 중에서 중학생은 인터넷 등의 음란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한 반면 고등학생은 케이블 방송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유해매체물 이용 방지와 관련된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른 차별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기숙과 김수연(1999)에서 청소년 비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학교적응, 성적, 가족화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는 달리 학교적응이 가족화목보다 더 우선순위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모두 다 포함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만족도이다.

여러 유해매체물 중 성인용 간행물과 영상물, 폰팅 등의 전화 광고, 사행성 게임과 선정성 게임에 대한 이용은 성경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선행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인용 간행물과 영상물이 청소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와 특별히 다른 점은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행

성 게임과 폭력/선정성 게임도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폰팅과 성매매 전화광고 이용은 여러 유해매체물 중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나 청소년 성경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전화 광고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이미 다른 유해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성경험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을 더 쉽게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고 내용도 성적 내용이 더 자극적이거나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에 비해 시간과 장소, 설비 조건 등이 따로 준비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들의 성경험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한 향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2. 권이중 외 5명. 청소년 교육론. 양서원. 1998.
3. 김수연, 이기숙.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인지 수준과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999. 6(1). 49-71.
4. 대전광역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http://www.djyp.or.kr/bheinfor\\_01.htm](http://www.djyp.or.kr/bheinfor_01.htm). 2008.
5.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
6. 우형진. 청소년의 YP활동과 인구통계학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이 유해매체물에 대한 태도, 인식,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008. 8(3). 381-417.
7. 이무식 외 5명. 일부 고등학생에서 성적 활동의 위험요인 분석.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000. 4(2). 199-217.
8. 청소년 보호 위원회. 1999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매체물, 약물, 업소부문. 서울: 청소년 보호위원회. 1999.
9. 최충욱. 유해환경과 청소년 문제. 한국교육사회학회 1997. 7(3). 55-80.
10. 최충욱, 조영제. 청소년 유해전자 출판물 접촉과 비행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997. 4(1). 45-62.
11.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1994.
12. Bushman BJ, Anderson CA. Media violence and the American public scientific fact versus media misinformation. American Psychology 2001. 56. 477-489.
13. Mullin CR, Linz D. Desensitization and resensitiza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Effects of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s on judgment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5. 69(3). 449-459.
14. Reichert T. Sex in advertising research: A review of content, effects, and functions of sexual information in consumer advertising. Annual Review of Sex Research 2002. 13. 241-273.